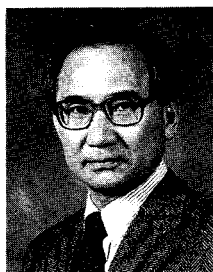


유혁교수 제7회 호암상(과학상) 수상기념 강연회를 마치고



유 혁

1955 서울대학교 화공과(학사)
 195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유기화학(석사)
 1962 Princeton University, 물리화학(박사)(supervisor : prof. A.V. Tobolsky)
 1962~1963 Dartmouth college, Post Doc, with prof. W.J. Stockmayer
 1963~1967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1967~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Department of Chemistry,
 Eastman-Kodak Chair Professor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Eastman-Kodak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유혁교수의 제7회 호암상(과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강연회가 대한화학회와 본 학회 주관 하에 지난 3월 24일 고려대학교 Technocomplex 5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호암상은 공학, 과학 및 의학의 학술관련 세 분야와 예술, 사회봉사의 비학술관련 두 분야를 합해 총 다섯 분야에 걸쳐 국내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한국인(재외한국인 포함)을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선정해 그 동안의 업적을 치하하고 학술분야의 경우 학술연구비를 지원해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삼성그룹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일곱번째의 수상을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고분자물리 및 동력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혁교수가 과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같은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 더욱이 작년에 애크론대학의 한창대교수가 제6회 호암상(공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고분자분야에서 과학상부문 수상자가 나오게 된 것은 이 분야의 중요함과 활발한 활동이 인식된 것으로 여겨져 그 기쁨은 더욱 큰 것이었다.

강연회는 유혁교수의 간단한 약력 소개와 호암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용철 삼성의료원 원장과 한국화학회의 백운기 회장 그리고 진정일 고분자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유혁교수의 실험실에서 방문연구를 하였던 KIST의 김정엽박사가 "Potentials of LED"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유혁교수와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김만원 교수가 "Soft Matter Physics-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으며 이어서 유혁박사의 첫번째 한국인 제자인 포항공대 장태현교수의 "A Forgotten Tool in HPLC-Temperature Gradient HPLC of Polymers"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유혁교수의 "Applications of Various Optical Methods to Physical Properties of Polymers-Research Directions and Lessons of Past 40 Years"라는 주제의 수상기념 강연이 있었다. 유혁교수는 강연을 통해 고분자의 동력학 및 계면현상, 그리고 생체막에서의 동력학 등에 대한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적 연구결과와 이론적인 모델과의 상관성 그리고 추진 중인 연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40여년 동안의 연구경험으로부터 좋은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올바른 연구주제, 연구를 위한 시기, 적합한 실험기구, 그리고 그룹내 또는 외부사람들과의 최적의 공동연구가 필수 요건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강연회에 이어 개최된 소연에서는 참석하신 분들과 유혁교수가 서로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혁교수는 그의 연구실에서 훈련받은 일본인 과학자로서 유수대학 강좌의 정교수가 6명이나 되는 등 국내보다는 오히려 외국에 더 잘 알려진 인상이 있으나 일찍부터 한국내의 고분자과학 발전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유혁교수는 1972년 Fulbright lectureship을 받아 인하대학교에 6개월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1973년 NSF-SEED consultant로서 KIST에 방문한 바 있다. 또한 KIST(1982), 한국화학연구소(1983), 한화그룹중앙연구소(1992~1996)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통하여 국내 고분자연구에 기여하여 왔으며 한국인 제자 7명[장태현(포항공대), 김홍두(경희대), 윤희창(유공), 박상수(아산생명연구소), 이웅기(LG중앙연구소), 이정식(Rohm and Haas, U.S.A.), 김상훈(NIST, U.S.A.)]을 배출하였고, 방문학자 7명[노익삼(인하대), 김정엽(KIST), 박형석(서울대), 김종득(한국과학기술원), 유경화(한국표준연구원), 서용석(KIST), 손대원(한양대)]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에서 항상 국문으로 이름을 명찰에 적어놓고 젊은 한국과학자들을 찾아 만나고, 외국의 유명과학자들에게 소개하여 격려하는 그의 소탈한 모습, 그리고 항상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워가며 국제학술회에서 좌중을 이끌어가는 유혁교수의 활동적인 모습은 참석한 한국과학자들에게 있어 친근감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왔던 바, 이번 호암상 과학상 수상은 더욱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유혁교수의 수상을 축하드리고 그 분의 건강과 더욱 왕성한 활동을 바라마지 않으며, 앞으로 국내의 본 학회 회원들에게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강연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진정일 고분자학회장과 고려대학교 화공과의 김우연교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연구부 서용석〉